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6월 30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김상태(044-203-5720), 배판술 사무관(5723)

떠오르는 아프리카 수출시장 개척 및 플랜트 수주 추진

- 탄자니아, 남아공, 모잠비크에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 파견 -

· 탄자니아 125만달러 농기계 수출계약 체결, 10억불 상담 성과 달성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은 **최대 규모의 민관경제사절단**을 동부 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경제 대국인 남아공, 모잠비크에 파견(6.27~7.5) 하였으며, **탄자니아를 시작으로 시장개척 활동에 돌입**했다.

○ 이번 경제사절단(단장: 이상진 통상협력국장)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과 해외 플랜트·인프라건설 수주 실적을 **아프리카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 추진**한 것으로

○ **산업부**, 플랜트산업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한국전력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, 포스코, LG상사, GS건설, 현대엔지니어링, 우암코퍼레이션, 수성엔지니어링, 정인무역 등 **30여개 기관·기업 55여명이 참여**했다.

□ 사절단은 6.29(월) 탄자니아 산업무역부, 건설부, 에너지광물자원부, 주요 기업 등 250여명의 **양국 정부·기업인들이 참석**한 가운데 **'비즈니스 파트너쉽 포럼' 과 '1:1 비즈니스 상담회'를 열었다.**

○ 이를 통해 한국의 정인무역과 탄자니아 'SUMA JKT(정부기관)'간 1차로 125만 달러의 **농기계(트랙터 61대) 수출계약 체결***, **1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플랜트·인프라 건설 수주 상담 성과**를 거두었으며,

* 당초 비즈니스 포럼에서 최종계약 서명을 하기로 하였으나 탄자니아측 사정으로 연기, 금번을 계기로 우리 농기계 수출이 지속되고, 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더불어서 양국 기업간 1:1 수출 및 수주 상담 성과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후속성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**대한상의와 탄자니아 상의간 협력 MOU도 체결**했다.

□ 또한, 양국은 이번 행사에서 **탄자니아의 전력,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모색**하고, 탄자니아 경제특구 개발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협력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등 상호 윈윈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

○ **이상진 통상협력국장**은 비즈니스 파트너쉽 포럼 축사에서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이며, 경제개발 경험과 축적된 산업육성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**한국이 탄자니아 최적의 협력 동반자임을 강조**하고,

○ 탄자니아 산업무역부 차관, 건설부 차관, 도로청장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이 세계적인 플랜트·인프라건설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**우리기업의 탄자니아 진출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**했다.

□ 한편, 경제사절단은 탄자니아에서 거둔 협력성과를 남아공과 모잠비크에서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 **양국간 1:1 비즈니스 상담 중심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**하여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내기로 했다.

○ 남아공(7.1일)에서는 **우리기업의 원전·민자발전사업(IPP) 화력발전소·신재생 에너지 건설 참여**, 남아공을 비롯한 남부아프리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(**FTA**) **체결방안 모색**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,

○ 아울러, **현대엔지니어링의 요청**에 따라 **남아공 사솔(Sasol)사 수석부사장을 면담**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주한 가스액화(GTL: Gas to Liquids) 플랜트 사업에 **사솔사가 기술투자자로 참여토록 적극 유도**할 계획이다.

□ 모잠비크(7.2~3일)에서는 **천연가스 개발 협력**을 비롯한 **후속 천연가스 배관망, 해상가스시설(FLNG) 및 도시가스배관망 건설사업 분야**에서 현지 투자 진출 방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한전이 추진하는 **모잠비크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 기공식**(7.3일)에 참석하여 동 모델이 모잠비크를 비롯한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

○ 이를 기반으로 한전은 중장기적으로 발전, 송배전 등 대규모 모잠비크 전력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**모잠비크 에너지기금청과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기로 했다.**

□ 산업부는 이번 방문 3개국에서 해외건설 수주 확대 및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기존 양국간 **에너지·건설 중심의 협력을 강화**할 뿐만 아니라, **제조업, 수출시장 확대 등으로 협력이 다각화하는 계기**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* 한국의 아프리카(사하라 이남) 건설·플랜트 수주 실적 : '05년 12.7억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'14년에는 22억 달러 달성(해외건설협회)

○ 산업부는 올해 **10월중 개최되는 한-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**에 아프리카 주요국 고위 정부인사, 기업 CEO 등을 초청해 1:1 상담회, 인력-기술-장비를 연계한 협력 추진을 통해 이번 **경제사절단 파견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하는 기회로 활용**할 계획이다.

※붙임: 탄자니아, 남아공, 모잠비크 민관 경제사절단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김상태(044-203-5720), 이응대 사무관(57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탄자니아, 남아공, 모잠비크 민관 경제사절단 개요**

□ **방문기간** : '15.6.27(토)~7.5(일), 6박 9일

□ **방문목적** : 우리기업들의 방문 3개국의 플랜트·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및 신규 시장개척 지원,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

□ **방문국가** : 탄자니아(다레살람), 남아공(요하네스버그), 모잠비크(마푸토)

□ **경제사절단** : 산업부 등 30개 기관·기업 (55명)

○ 정부 부처 : 산업부(**수석대표** : **통상협력국장**, 중동아프리카과 사무관)

○ 기관·기업 : 공기업(가스공사·한전·KOTRA·광물자원공사),
협회 및 단체(플랜트산업협회·대한상의·해외자원개발협회),
금융지원기관(수출입은행·무역보험공사),
대·중소·중견기업(중공업·건설·엔지니어링·종합상사) 등

□ **주요 활동 및 행사 계획**

① 탄자니아(다레살렘)

- 한·탄자니아 비즈니스 포럼 및 1:1 상담회(6.29 09:30-17:00)
- 주요 인사 면담(6.29일) : 산업무역부, 에너지광물자원부
- 진출/교민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

② 남아공(요하네스버그, 프리토리아)

- 한·남아공 비즈니스 포럼 및 1:1 상담회(7.1 09:30-17:00)
- 주요 인사 면담(7.1) : 산업무역부, 에너지부, Sasol사 수석부사장
- 진출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

③ 모잠비크(마푸토)

- 한·남아공 비즈니스 포럼 및 1:1 상담회(7.2 09:30-17:00)
- 주요 인사 면담(7.2) : 산업통상부, 광물자원에너지부 등

- 마이크로그리드건설 지원사업 기공식(7.3 08:00-13:00)